

STEP 1.
2018 모의논술 연습하기

2018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문제 인문사회 I

[문제 1] : [가]와 [나]에 나타나는 개념을 활용하여 [다]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문제 2] : [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의 '삼천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진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아도르노는 현대 사회를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동일성의 원리란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대상들을 주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의 형식으로 강제하는 지배 원리를 말한다. 동일성의 원리에 따르면 각각의 상품들은 구체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 교환 가능한 추상적인 교환 가치의 대상으로서 '동일한 것'이 된다.

그는 대중문화가 이러한 동일성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즉, 대중문화는 사람들의 내적 본성에 작동하여 모든 사람이 동질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문화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문화 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대중문화가 교환할 수 있는 것만큼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어 결국 시장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의 산물이 나타내는 특징을 '표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표준화는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로서 대중문화가 겪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대중음악은 몇 가지의 표준적인 구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인기 가요의 처음 몇 마디만 들어도 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대중은 자신의 추측이 맞아떨어질 때에 비로소 행복감을 느낀다. 이는 문화 산업의 산물들이 표준적인 도식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된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곳을 지향하는 자본 투자의 원칙은 문화 산업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특정한 작품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작품이 그것을 흉내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표준화가 확립되는 것이다. 표준화에 성공한 경우라도 대중이 식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문화 산업의 산물은 대중에게 새로운 것, 예전의 것과는 다른 뭔가 특수하고 개성적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 EBS '수능특강' 국어

[나] 한 사회의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문화 또는 전체문화라고 한다면, 그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문화'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는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직업, 취향, 종교, 민족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한다. 여러 요인과 배경에 의해 형성될 뿐 아니라 새롭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하위문화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획일성을 방지하고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구성원의 문화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구성원들은 자신을 특정한 하위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구별하는 것이다. 때로 하위문화에는 주류문화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하위문화는 기존 문화의 보수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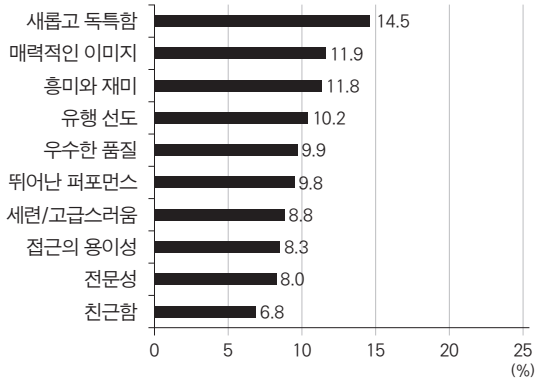
가령 최근 부상한 루저문화는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패배했거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문화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패자는 수적으로 다수이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약자이고 소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쟁에서 낙오한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와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며, 약자와 패자에게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가 음악, 문학, 개그 프로그램

등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승자를 동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패자들의 정서에 감정이입하며 다소 저항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현대 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비판과 낙담에만 빠져 있기보다는 나름의 유머 코드를 유지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특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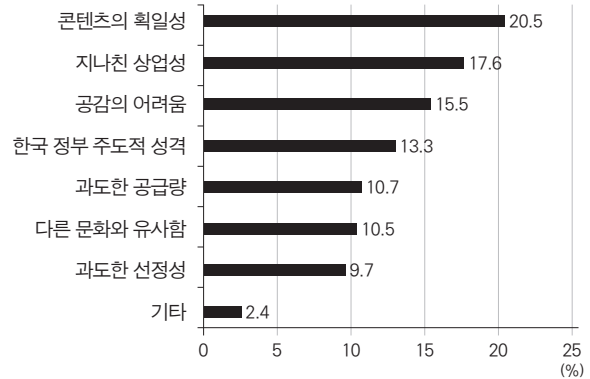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다]

[도표 1] 한류가 인기 있는 이유



[도표 2] 한류의 생명력이 짧은 이유



※ 설문 조사 대상 : 해외 거주 외국인(9개국 :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브라질,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3,600명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라] 앞부분 줄거리 : 어릴 적 '나'는 연고지 야구팀인 삼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에 가입했지만 삼미 슈퍼스타즈는 그해 꼴찌를 하였다. 이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나 구조 조정으로 해고를 당하였다. '나'는 어릴 때 친구인 조성훈의 제안에 따라 이미 해체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결성하였다.

삼천포

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은, “이곳이야, 이곳으로 빠지는 것이 삼미의 철학에 절대 부합하는 일이야.”라고 내가 말하자 모두들 대찬성을 했다. 특히 기뻐한 것은 조성훈이었다. 높은 “맞아, 삼미의 행적을 미뤄 볼 때 어쩌면 정부와 언론의 눈을 속인 채 실제 연습은 이곳에서 했을 가능성이 커. 마산야구장의 문제는 하나의 속임수였던 거야.”라는 공상 과학 같은 소리를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 전 국민이 휴가에서 돌아온 그해 10월, 아무도 휴가를 갈 리 없는 그해 10월, 우리는 삼천포로 출발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하고 보니 마치 공상 과학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짐을 푼 곳은 삼천포항에서 조금 떨어진 '하이면(下二面)'이라는 이름의 해변 마을이었다. 보기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생각하기에 따라 그저 그럴 수도 있는 한적한 시골이다. 작은 학교가 있고, 작은 우체국이 있고, 작은 농협이 있고, 작은 집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논과, 하늘과 바다가 있다. 논은 지구의 일부였고, 하늘은 은하계의 일부였고, 바다는 태평양의 일부여서-학교와 우체국과 농협과 집들은 더욱 작아 보인다. 아마도, 이곳의 지리를 측정할 사람은 그러한 시각의 차이에 꽤나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 즉 인간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한순간 달라지게 만드는 힘을 이 마을은 지니고 있었다.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곤란하다. 그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소리를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삼천포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해가 지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즉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연장근무, 철야 근무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략)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한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다니는 것은 개들뿐이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쿨쿨 잔다. 여러분이 잠든 이 시간에도 이웃 면에서는 다수확 신품종의 벼 모종 보급을 비밀리에 착수, 내년의 수확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면 어찌지요?라고 물어보아야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앞선 이웃 면이 그 돈으로 국내 최대, 국내 최고의 농지형 테마파크를 국내 최초로 건립해 버리면 어찌지요?라고 해 봐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곳은 무엇이 들어와도 국내 최후이며, 삶의 분주함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저이며, 그 어귀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동네 사우나탕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내 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다. 글로 정리하고 보니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 같다.

삼천포에서의 일주일은 언제나 생생하다. 남일대 해수욕장(국내 최소 규모)에서 우리는 캐치볼과 러닝을 하고, 밤이면 맥주를 마시며 삼미 슈퍼스타즈의 시합 비디오를 보거나, 웃고 떠들거나, 자거나 했다. 언제나 새 치약을 꼭 눌렀을 때와 같은 기분의 시간이 우리의 주변에 흘러넘쳤으며, 우리의 시간은 그런 민트향이라든지, 박하향이라든지, 죽염 성분이 가미된 솔잎향으로 가득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았을 뿐인데도 그 일주일의 전지훈련에서 우리는 점점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이해해 가고 있었다. 즉 어떻게 달려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어떤 공을 골라야 할지, 어떤 공을 쳐야 할지를 어렵듯이 느끼게 된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어떤 코스를 만들어도 100미터가 나오지 않았다. 어렵쇼, 80미터도, 70미터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브론토의 처남은 50미터의 직선 코스를 정해 50미터 달리기를 실시했다. 실로 50미터도 빠듯한 백사장이었다. 첫 주자는 조르바였는데 조르바는 난데없이 “이봐, 인간은 원래 바다에서 왔다는 걸 아나?”라는 말을 하더니 그냥 백사장에 주저앉아 버렸다. 두 번째 주자는 브론토였는데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기록을 냈고, 세 번째는 눈이 큰 문하생이었는데 얼마나 운동 신경이 둔한지 마치 프라모델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줄줄이 ‘주종족’*들의 차례였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달리던 도중에 모두 바다 속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은 안경잡이 괴소녀이었는데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자세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동작으로 스타트를 한 다음, 19초의 기록으로 진지하게 끝냈다.

“전력으로 뛰 거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브론토의 처남이 물어보자 왜 못 믿느냐는 표정으로 안경을 까딱이며 “네”라고 대답했다. 결국 코치도 진이 빠졌고, 또 그다음 주자는 조성훈이었는데 마침 똥을 누는 중이기도 해서 50미터 달리기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의 탓을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으로 돌렸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신이 우리에게 부과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였다. 비록 윤희론자가 아닐지언정 나는 그 일주일의 어느 어귀쯤에서-지금의 삶이 무언가 본리그를 앞두고서 행하는 일종의 전지훈련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지훈련의 어느 어귀쯤에서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의 숙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 숙제가 어떤 것인지를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고, 남아 있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중략)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

*주종족: 인터넷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세 종족. 여기서는 그들을 닮은 3명의 등장인물을 가리킴.

-박민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고등학교 ‘문학’ 교과서)